

교회 예배 시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사도신경 가장 많이 알려진 신앙고백이자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회 예배시 고백합니다.

니케아신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자 합의한 신앙고백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세상의 모든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합니다.

감리교 교리적선언 한국감리교회만의 신앙고백으로서 한국감리교회 최초의 문서화된 신앙고백입니다.

1. 성령강림 후 제6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 여름 바캉스 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이동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7월 기도회 인도자 안내.
7/9 김태균 집사, 7/16 양승희 집사, 7/23 정원철 집사, 7/30 홍기원 청년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 성서 일과 (성령강림 후 제 7 주)

제1말씀 : 이사야 55:10-13

제2말씀 : 로마서 8:1-11

시편교송 : 시편 119:105-112

복음서 : 마태복음 13:1-9, 18-23

예배 봉사 담당자

7월 16일

7월 23일

대표기도 : 공동기도

김태균 집사

제1말씀 봉독 : 김정수 집사

정원철 집사

제2말씀 봉독 : 홍기원 청년

김지현 성도

복음서 봉독 : 집례자

집례자

7월 예배안내 봉사자 : 정원철 집사

7월 다과 준비부서 : 사회봉사부

안내

예배시간 및 교통편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등록 절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리중앙감리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앙연회 유럽지방 소속입니다.

(Association Culturelle de L'Église Méthodiste Coréenne De Paris)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에 참석하신 후 새신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담임목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공동예배 : 매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기도회 : 매주일 예배 후 진행

오시는 길

17 bis, Rue Bayard 75008 Paris

메트로 1, 9호선 Franklin Roosevelt

메트로 1, 13호선 Champs-Élysées Clemenceau

교회 홈페이지 <http://emcp-france.com/>

네이버 카페 : 파리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연락처 : 06 5841 2808, macarius@hanmail.net

2023년 주제 : “새 힘과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5)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배함으로 참 기쁨과 진리를 얻는 예배 공동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평화를 가꾸는 생활 공동체

오늘의 묵상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때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대답합니다. 좋은 일들을 하고 제법 성공하면 나 자신에 대하여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나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뿐입니다. “내 평생이 이런 일들을 보라... 보라, 보라, 나는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곧 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말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해주면 당신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면 당신은 화가 나거나 급격하게 우울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방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결정지을 까닭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또 “내가 가니 것이 곧 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받은 교육, 가진 재산, 좋은 부모 등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잃는다면, 나는 내적 어둠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 내가 가진 것이 나”라는 식으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삶이 오르락 내리락 기복의 연속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접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나 남들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나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에 담긴 모든 부드러운 힘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너는 사랑받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의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는 쓸모없다, 못생겼다, 무익하다, 비루하다, 있으나마나 한 존재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한 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예배 순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성령강림 후 제 6 주

집례 : 박재현 목사

개회의 예배

침묵기도	Temps de Silence et de Recueillement	다함께
개식사	Paroles d'accueil	집례자
✚ 입당송	Cantique	15 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인사	Salutation de paix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우리와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Prière de Repentance et Annonce du Pardon de Dieu	다함께
✚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이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 (각자) 참회의 침묵 기도를 드립니다. ✚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 경배와 찬양	Cantique	41 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다함께
✚ 신앙고백	Confession de Foi	사도신경 (새번역)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송 Psalms du jour	시편 145:8-14 (구약 878쪽)	다함께
	영광송 Spotane	4 장 성부 성자와 성령 십자가를 향하여 서십시오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Prière

박재현 목사

말씀의 예배

오늘의 말씀 봉독	베드로후서 (2 Pierre) 1:3~8, 2:17-22 (신약 366, 367쪽)	황유란 집사 신미영 성도
요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설교 Prédication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박재현 목사
찬송 Cantique	455 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봉헌 및 기도 Prière d'offrande		집례자

폐회의 예배

교회소식 Annonce		집례자
✎ 결단의 찬양 Cantique	620 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다함께
✎ 결단의 선포 Proclamation	✎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다함께
	✎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 축도 Bénédiction		다함께